

101회기 결산

영성회복 · 전도운동 불 지피고 교단 위상 재정립

대 사회 메시지 통해 교단 목소리 높여... 교계운동 적극 동참

그 어느 회기 보다 평온하고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된 101회기는 모두 11차례의 임원회와 5차례의 실행위원회를 거치며 회기를 마감하고 있다. 영적부흥을 이루고 건강하고 자랑스러운 교단을 만들겠다고 출발한 101회기는 팬데믹을 지나며 위드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교회의 회복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복음의 열정을 되찾기 위해 힘쓴 한 회기로 평가 받으며 크고 작은 사업과 실적 등을 이루어냈다.

△ 종이 대신 태블릿 PC ‘환경 살리는 녹색총회’



한교총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탄소중립 실천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교단도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첫 사례로 임원회의부터 시작되었다. 지난해 임기초 총회장 신현과 목사는 임원회의를 시작으로 교단내 모든 회의에 종이 없는 페이퍼리스(paperless) 회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 총회장은 “종이 없는 회의가 처음엔 많이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겠지만 탄소중립의 실천을 위한 변화를 위해 다소 낯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우리들이 앞장서 가겠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후 페이퍼리스 회의는 실행위원회로 확대되며 정착되어 갔다. 종이 없는 회의 실시로 친환경 가치의 확산은 물론, 종이문서의 출력·배포에 드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종이와 토너 구입 예산도 절감할 수 있었으며 또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는 디지털화를 통해 총회본부 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대사회적 활동 ‘활발’



102회기 총회는 대사회적인 이슈에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지난해에 이어 교계활동에도 활발하게 동참하며 크고 작은 이슈들에 동참해 나갔다.

교단 차원에서 낙태합법화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입장을 계속해서 밝히고 한국교회와 공동대응 전선을 구축해 활동을 펼쳤다. 특히 한국성결교회연합회와 공동으로 국회 앞에서 진행된 차별금지법 반대 시위는 교계에 큰 관심을 불러왔다. 대표회장 교단인 우리 교단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우리 국민이 누려온 자유와 헌법, 특히 종교와 교육, 기업 활동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주는 악법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강력히 반대하며 폐기를 촉구한다”라고 주장했다. 총회 차원에서 대기오염과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탄소 배출을 줄이자는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도 진행하는 한편 기성, 나성과 연계된 한국성결교회연합회도 대표회장 교단으로서 활발하게 활동해 나갔다.

△ 땅끝까지 불어라 전도의 바람! 전도 운동 활발



재개되며 영성회복과 교단 부흥을 위해서도 노력한 회기였다. 성결인들의 큰 관심 속에 성결인의 전도대회가 발대식을 시작으로 전후 반기로 나뉘어 진행 중이다. 1차 전도운동은 840여 명의 결신자를 얻었다. 또한 지방회 별로도 전도세미나 특강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교단 부흥과 복음 확장을 위한 일도 소홀함 없이 활발하게 진행해온 회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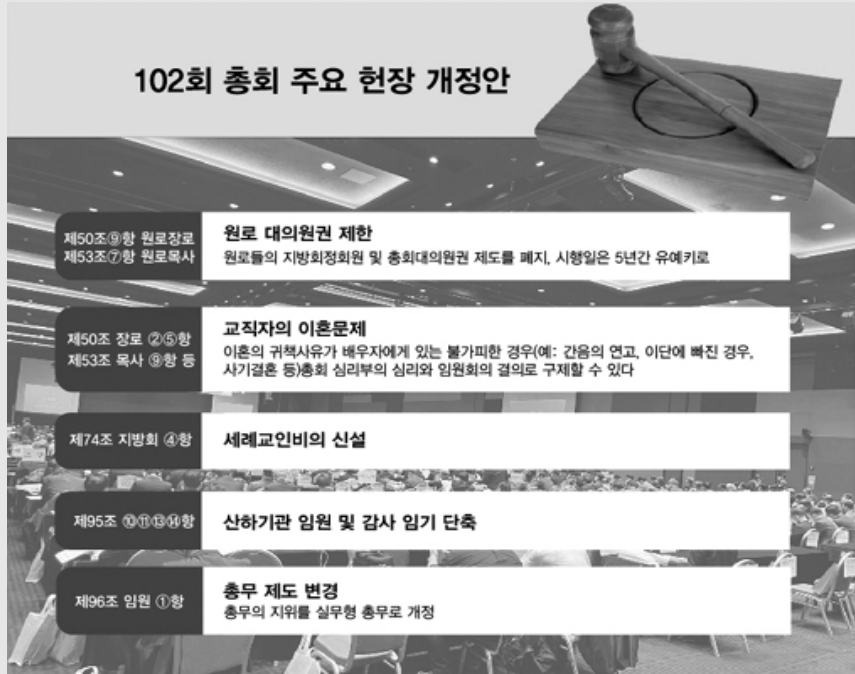
△ 행정 및 목회 지원

개교회에 대한 총회 차원의 지원과 행정업무의 지원도 원려했던 회기였다. 종교인교세에 대한 미흡한 부분들을 보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의 시간을 가지는 한편 전반적인 행정시스템도 표준화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더했으며, 목회자 정보 등 일련의 총회사무도 전산화하여 예전에 비해 보다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하였다.

제102회 정기총회 이슈 | 주요 헌장개정안

교직자 이혼 시 자동파직 완화... 산하기관 임원 임기 단축

제102회 총회가 오는 5월 22일 부터 23일까지 성결대학교에서 조행될 예정인 가운데 지난해 구성된 헌장개정연구위원회가 1년여 동안 연구한 헌장개정안이 어떻게 처리될지가 주목되고 있다. 이미 여론 조사와 공청회를 통해 주요 이슈들에 대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최종적으로 법제부를 거쳐 총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가 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헌안을 살펴봤다.



■ 원로 대의원권 제한

원로목사와 원로장로의 총회대의원권 제한이 이번 헌개위를 통해서도 개정안으로 등장했다. 현행 원로들의 대의원권 제도를 지방회 정회원 및 총회대의원권 제도를 폐지하되 그 시행을 5년간 유예기로 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전 총회장과 전 부총회장은 연권회원으로 예우한다는 예외조항을 두어 투표권 없는 참여권만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원로들의 대의원권 제한은 그간 수차례 상정되어 왔었으나 번번이 부결되었다. 올해는 여론조사결과를 보더라도 대의원권 제한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당사자인 원로들도 유예기간의 의견 차이를 나타낼 뿐 그 어느 해 보다도 대의원권 제한에 대한 분위기는 높은 편이다.

■ 교직자의 이혼문제

현행 헌장은 교직자가 이혼 시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자동으로 파직 되었으나 시대상의 변화와 귀책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는 선의의 피해를 구제키 위해 개정안이 연구되었다. 헌개위를 통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이혼의 귀책사유가 배우자에게 있는 불가피한 경우에: 간음의 연고, 이단에 빠진 경우, 사기결혼 등) 총회 심리부의 심리와 임원회의 결의로 구제할 수 있다”로 개정안을 제출했다. 몇 가지 명확한 조항을 두어 면책사유를 제시했으나 ‘등’이라는 의존명사를 두어 혼란의 소지도 우려된다.

■ 세례교인비의 신설

현행 지방회비와 총회유지비만을 부과하던 것을 세례교인비를 신설하여 납부토록 한 건으로, 총회에서 연 1회 세례교인비를 부과 지방회는 세례교인비 50%를 총회에 납부토록하는 것이다. 완납한 지방회는 총회대의원비를 면제하며, 미납시 대의원 자격을 제한한다. 해당 법안이 가결되면 총회재정은 연간 3억 5천만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총회 산하기관 임원의 임기 단축

유지재단, 은급재단, 총회성결교신학교, 성결교신대원, 학교법인 성결신학원의 이사 및 이사장의 임기를 이사는 3년에 1회 연임, 이사장은 3년 단임제로 변경하고 감사의 임기도 2년에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단, 교육기관장의 경우 목회자 양성과 교육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성결대총장, 신대원원장, 성결교신학교 원장의 경우는 3년에 1회 연임 토록 하였다.

■ 총무 제도 변경

현행 임원 중 한 명인 총무의 지위를 실무형 총무로 개정한다는 법안으로 산하기관 당연직 이사를 배제하고 임기도 현행 4년 중임에서 3년에 2회 연임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23년 『예성우성장학재단』 장학생 선발공고

재단법인 『예성우성장학재단』은 예성교단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헌신할 장학생을 아래와 같이 선발하오니 지원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9일

재단법인 예성우성장학재단 이사장

1. 지원기간 2023년 5월 10일 ~ 6월 10일

2. 지원대상

- ① 구원의 확신과 예성교단의 사중복음 교리를 믿고 전파하려는 사명이 있는 자.
- ② 예성교단의 헌장을 지키고, 신학사상을 신봉하고 계승의 의지가 있는 자.
- ③ 학위 과정을 마친 후 예성교단을 위해 헌신을 서언한 자.
- ④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지원서류

- ① 인적사항(이력서 및 성장과정 자술이력서)
- ② 가족상황(주민등록등본과 초본)
- ③ 추천서류(추천자: 교단목회자, 추천서류는 자유서식)
- ④ 관련증명서(학부 및 대학원 졸업/학위/성적/증명서/세례증명서 등)

- ⑤ 외국어 능력 평가서(국가기관 인증서 발행 예) TOEFL/TOEIC/등)
- ⑥ 기타 선정 기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요청할 수 있음.

4. 접수 및 문의

- 이메일 접수 : 모든 서류는 스캔 후 이메일 접수 (counseling@naver.com)
- 문의처 : 0502-847-3024(재단법인 예성우성장학재단 사무국)

5. 선정공고

7월 중 개별통지와 함께 성결신문 공지

6. 기타

- ① 최종서류 합격자에 한해 면접 실시.
- ② 제출된 모든 서류는 회부하지 않음.
- ③ 선발대상이 없을 시 선발하지 않음.

온라인에서 만나는
성결신문

<http://sknews.org>

한발 앞선 기사와 정보로 다가갑니다

중요한 행사나 회의는 당일 기사가 업데이트 됩니다.
2주 동안 소식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면에 실지 못한 기사나 사진이 첨부하게 됩니다.

지면에 다 실지 못한 기사나 취재 뒷이야기 그래픽에 현장감을 살린 다양한 사진이 제공됩니다.

독자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기사에 대한 댓글 등을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기사의 스크랩이 가능합니다.

보편하고 쉬운 기사는 따로 즐겨찾기에 추가 할 필요 없이 바로 스크랩이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중요한 기사를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사이트 내에서 원하는 기사를 선택, 상대방에게 직접 메일 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중이신문과 똑 같은 형태의 신문(PDF 서비스)이 제공됩니다.

해외에서도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종이신문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과거에 발행된 신문을 오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2007년부터 제공되고 있습니다. 차츰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성결신문사

성결신문은 성결교회를 이끄는
지도자 언론기관으로서
목회자와 성도들의 신앙과 목회를
돕고자 문광부에 등록된 교단기관지입니다

